



2012

11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제335호

발행 : 김성규 / 총무 : 김용인 010-6505-3704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chegal44@gmail.com

노인과
고독 그리고
친구 } 徐鐘星



이야기 #1 독일의 文豪 괴테는 73살에 19살의 아가씨 울리케에게 청혼할 만큼 늙음을 모르는 豪放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괴테도 末年에는 자기 집 공간 열쇠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직접 관리했다. 그 이유는 매끼니때마다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 방으로 찾아와서 식량을 타가는 동안이라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고 한다.

이야기 #2 프랑스의 여류작가 시몬느 드 보바르의 소설 「인간은 모두 죽는다」의 주인공인 허스카는 不死藥을 먹고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없게끔 숙명 지워진 사나이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죽어버리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고독과 권태에 겨워 몇 번이나 자살을 했지만 죽어지지 않는다.

허스카는 소설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아무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없다. 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던 기억도 없으며 나의 마음에 콧김만한 정열이 일어본 적 또한 없다. 나는 과거도 미래도 또 현재도 갖지 못한 가없는 사나이다. 내 주변에서 인간은 모두 죽어버리고 지구는 하얀 여백일 뿐이다. 그 여백에는 나와 단 한 마리 새앙쥐가 전부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양과 껍질 벗기듯이 그 많던 욕망들로부터 하나씩 소외당하는 과정이다. 늙어감에 따라 욕망들이 서서히 줄어드는데 가장 늦게까지 남

는 욕망이 식욕과 성욕 그리고 集團慾이며 그중에서도 최후까지 남는 것이 집단욕이다. 집단욕은 누군가와 어울리고 싶은 욕구로서 고독의 반대 욕망이다. 그래서 노인이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마지막 욕망마저 잃은 거나 다름없다.

고독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소외됐을 때 느끼는 정서적 고통으로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과 아쉬움에서 유발하는 노인의 고독은 젊은이의 고독과는 달리 절망적이고 만성적이다. 노인의 고독은 어느 가을날 낙엽이 외투 깃을 스칠 때 홀연히 느끼는 낭만적인 쓸쓸함이 아니다. 넓고 거친 이 세상에 혼자뿐이라는 멍멍함으로 뻗속까지 저리는 괴로움인 것이다.

고독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경험하는 비율도 증가하며 65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5세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년기도 길어진 오늘날 노인의 고독은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도 이제 70대에 들어선 노인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고독을 피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여기서의 건강에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물론 행복까지 포함된다. 노년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건강한 노인’으로 사는 기간을 연장하고 ‘허약한 노인’으로 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다. 시쳇말로 ‘99 88 23 4’이다.

영국의 속담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건강의 비결이 활동, 만남 그리고 대화임을 가르쳐준다. 만나서 대화를 나눌 대상으로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이 있지만 특히 노인이 가장 가깝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상대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2010년 기준 노년기의 자녀세대와의 관계를 보면 노인 인구의 약 70%가 자녀 세대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인의 사회관계망에서 자녀의 비중이 줄어들고 비혈연관계망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노인의 삶의 幸福도에 비혈연관계망에서 친구가 동료나 이웃보다 더 효과적인 기능을 하며 친구와 전화 연락을 자주 하고 직접 만나는 횟수가 잦을수록 행복도가 높다고 한다.

친구가 노인의 삶의 행복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이유는 연령, 삶의 태도, 가치 기준, 신체 변화의 체험 등이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남의 속 이야기를 자신의 일처럼 경청해주고 일상과 여가활동을 공유하며 사회적인 자극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행복은 추구해서 얻기도 하지만 선택으로써 누리기도 한다. 어디에서 살아야 하고 무슨 명품을 사야 하는 것은 추구의 대상이지만 동창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격의 없이 정담을 나누면서 흐뭇한 시간을 갖는 것은 선택만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베이컨은 “최악의 고독은 친구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친구는 서로 고독을 막아주고 치유해주며 ‘건강한 노인’으로 이끌어주는 名醫다.

우리 모두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하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자! *



10월 월례회는 10월30일, 경북 청송 주왕산 단풍여행으로 같음했습니다.

참석자

강동균 강수성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방태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용인 김준형 김정수 변중일 손기홍 박소학 박종근 배종길
 변재국 여경현 우용태 이무일 이대우 이중량 장영의 장정치 전기용 정안정 정의건
 정정용 정창봉 조정웅 조종석 지해경 최건일 최광수 정종필 이상 37명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2년10월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150,000	김정수	식대		주왕산 야유회
			회보	210,000	인쇄비
				59,670	발송비
찬조	200,000	재경 허호동문	경조비	100,000	김순철 상가
	200,000	변재국		100,000	조종석 혼가
	100,000	조종석		100,000	변재국 혼가
기타	166,100	야유회 잔액	교통비	50,000	조종석혼가(대구)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816,100		지출계	769,670	
전월이월	4,942,647		차기이월	4,989,077	
합 계	5,758,747		합 계	5,758,747	



- ♣ 강수성 동문
동문회 새주소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봉곡로3번길17
- ♣ 김준태 동문
동문회 새주소입니다.
부산 북구 금곡대로 228번지 106-1206
(화명동, 동원로알파크)
- ♣ 김준형 동문
동문의 새책 '창동인블루3' 이 발간
되었습니다. 2004년 이래 근 7년간 마
산의 도심 창동이 '예술의 거리' 가

되기를 바라던 생각과, 김용실 동문
의 추모공연이 지속적으로 이어기
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동문의 문학세계가 더욱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 ♣ 최건일 동문
동문의 새주소입니다.
진주시 강남로101 101동504호

휴대폰번호변경안내

- 김태조 동문 : 010-2751-7149
- 남기제 동문 : 010-3884-7739
- 박광지 동문 : 010-5210-8028
- 변판석 동문 : 010-2229-6707
- 조창식 동문 : 010-3586-5288

본부동창회 제작 : 김용인(우리은행) 1002-844-779524

facebook

김건일

내가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마산고등학교와 건국대 국문과를 다니면서 대학교 때는 총학생회를 문학회를 움직이며 유신 독재를 철저히 반대하고 데모에 앞장을 섰다.

그런 내가 독재자의 딸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추천 한다. 지금 너무나 한국 사회가 부패하여 질서가 파괴되고 법이 지켜지지 않고 종북세력이 설쳐서 독재시대 보다는 더 사회가 불안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의 주위도 너무나 부패하여 박근혜 후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박근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 중에 박근혜 후보만한 정직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걸고 이 나라를 정직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이 정직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의 대통령은 단 한사람도 정직한 대통령이 없었다.

지나고 보면 돈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면 아귀와 같이 돈을 밝혔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대통령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베트남 같은 곳에는 호지명이라도 있는데 한국에는 감옥살이를 하고 생명을 바치며 독재 투쟁을 해도 대통령이 되면 돈을 밝히는 못나고 비열한 대통령이 되고 마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여, 기회는 단 한번 뿐이다. 부패한 측근들을 물리쳐라! 측근들을 눈을 똑 바로 응시해 보라! 눈알을 굴리고 앞에 미소를 가진 자 아첨하는 자는 측근에서 물리쳐라!

삼국지의 유비를 보라. 삼고초려하여 제갈공명을 얻지 않았는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에 이런 인물이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 김종인씨는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척결 나라의 기강을 우선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기강 정직한 사회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문제다. 주위에 참모가 많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니다. 단 한사람의 참모라도 박근혜 후보를 정직하게 부패척결 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모가 있으면 좋겠다.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 2012. 9. 20 09:21 서울 근처에서



QR코드 스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마고월보를 보느냐고요?

스마트폰에 QR코드스캔 어플을 설치하세요. 스마트폰 검색창에서 'QR코드스캔' 이라고 입력하면 나옵니다.

편집인의 아이폰에 설치된 스캐너는 Daum의 쿠루쿠루입니다.



이번달 모임은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사직운동장 축구보조경기장에서 재부동문 가족체육대회로 같음하였다.

참석자

강신평 김대균 김성광 김수곤 김수용 김준태 김효석 나길보 류휘국
박진형 박청길 송길영 이의승 이장우 이황구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최진화 조창제 김용인(본부) 21명

FotoGallery



누가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 했습니까
우리 한번 국향에 흠뻑 젖으며
사색해 봅시다

Apple | iPhone 4 | Spot | 1/150sec | F/2.8 | 3.9mm | ISO-80 | 2012:10:09 17:15:16

마산 · 부산 · 서울 합동 산행기(10. 24~25)

봄에 만나고
이 가을에
또 만난 친구들] 정현경 (1)

가을 산을 흔히 삼홍(三紅)이라고 한다.

단풍으로 산이 붉으니 산홍(山紅)이요, 단풍으로 계곡이 붉게 물들었으니 수홍(水紅)이요, 산과 물이 모두 붉게 물들었으니 산에 들어간 사람마저 붉게 물들어 인홍(人紅)을 이루기에 이 셋을 합해서 삼홍이라 부른다. 이처럼 아름다운 삼홍의 가을 산을 함께 찾아 멋진 추억을 만들어보자고 지난 3월 졸업 50주년 행사 때 제주도

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부산 금정산 범어사 산행길에서 함께 만나 아름다운 금정산의 풍경에 사색하고, 마음을 물들이고 바쁘지 않는 발걸음으로 느껴보는 가을 산행의 맛을 한껏 즐겨 보기로 한 것이었다.

서울에서 박박중, 서종성, 조재호, 주유삼, 허호 친구가, 마산에서 구해룡, 김석백, 김용인, 배종길, 변재국, 이아인, 이중량, 제갈선광, 최광수 친구가, 부산에서 강신평, 김수곤, 김수용, 김준태, 박청길, 이의승,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최진화, 황의신 친구가 다시 만난 것이었다.

12:00 서울의 허호 친구가 승용차로 일행과 함께 지하철 범어사역에 도착하면서 마산에서 온 친구들과 만남의 반가움이 시작됐다.

인근의 '고려 해장국' 집에서 점심을 나누면서 오늘의 산행을 추진한 최진화 친구가 행사 취지와 1박 2일의 산행 일정을 설명했다.



점심을 끝내고 부산 동기회 이황구 회장, 송길영, 윤성업 권기옥 친구가 함께 산행은 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하고 싶으면서 고마움을 전하고 돌아갔다.

12:50 경동 APT옆 등산로를 따라 멀리 양산 동면을 비껴보며 일행은 줄지어 오름을 시작했다. 아직 완전한 가을은 느낄 수 없었지만 전형적인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 덩구는 낙엽들이 가을 산길을 환상 속에 젖게 하면서 이별 의식을 앞두고 한껏 화려해 짐을 실감케 했다.



나이를 감안하여 선택한 산행코스인지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숲속 맑은 공기의 상쾌한 기분 속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경사진 산책로를 앞당겨 나갔다. 걸음 중에 허호 친구가 우리나라에 노후를 즐길 김도 좋지만 ‘노다공소(勞多功少; 늘분주한 것 같으나 실속이 없는 것)’로 비춰지는 삶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관상 사주에 나오는 ‘역마살’의 한편을 들려 줬기에 주변의 몇 친구들이 떠올려 줬다.

14:20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는지라 그래도 비탈진 곳을 오른 지 시간 반

을 가쁜 숨을 몰아 오른 후 범어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계명봉 오름길의 입구 넓은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산행의 휴식에는 막걸리에 족발 안주를 곁들임이 제격으로 잠시나마 멋진 휴식을 만들었다. 오늘 산행의 추진 위원장격인 최진화 친구가 알뜰히도 챙겨온 고마움 덕분이었다. 짧은 휴식을 접고 하산을 재촉했다.



14:40 가을이 내려앉아 알록달록 가을색과 초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하산길에서 본 천년고찰 범어사에도 가을이 화려하게 곱게 내려앉았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범어사 산문을 들어서니 허리 굽은 천년송이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듯 늘어서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금정산 산마루에는 금빛을 띤 우물이 항상 가득 차 있으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그 금빛 우물 속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에 의해, 범어사라는 절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기록이다.

김석백, 박박중, 서종성, 지해경, 황의신 친 ▶



◁ 구들은 부처님 앞에서 잠시나마 내 삶의 그림자를 내려놓고 엄숙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성불을 기원했다. 사찰 정문 쪽으로 내려오니 조창식 친구가 젊은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요즘 생활영어 학습에 맞들인 근황이 저런 계구나 싶었다.

에 올라 18:00부터 산성 ‘자봉산장’에서의 오리고기 만찬장에 둘러앉았다.(다음호에)



16:00, 출발 때 만났던 지하철 범어사역에서 온천장 허심청 목욕탕으로 행했다. 목욕은 김수곤 친구가 우리 일행을 초대회원 자격으로 섭외하여 산행의 피곤함을 멎진 온천으로 잊게 해 줬다. 사우나를 끝내고 오늘밤 우리들의 숙소가 될 산성 ‘자봉산장’에서 내려온 봉고차편으로 산성길



8쪽(산따라-)에서 이어짐 -

라는 이름표를 단 큰 나무가 있는데 알고 보면 벼락을 맞은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가 뺨은 모양이 벼락치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숨을 고를 것도 없으니 물 한 모금 마시고 곧장 비음산으로 향한다. 초입에는 산성과 나란히 넓은 숲길이 완만하고 등성이에 오르면 조금 넓은 터에 벤치가 나란히 앉았다. 조금 오르막에는 둥근 나무를 하나씩 깔아 놓은 계단길이 뻗어있고 끝자락에 닿으면 숲이 터널을 이루었다. 터널에 올라서면 「비음산명품송」이 한껏 품을 재고 서있다. 이제부터는 숲길이 조금씩 좁아져 아늑한 맛을 더해줄 것처럼 보이더니 그것도 잠시 계단길이 한없이 뻗어 올라간다.

비음산 하면 진달래축제로 유명한 이름답게 계단 양옆에는 진달래가 울창하게 담장을 이루었고 계단을 다 오르면 뽕죽한 바윗길로 이어지지만 이내 등성이(510m)에 올라서면 평평잡한 모습이 헬기장 같기도 하지만 헬기가 내려앉을 만큼 넓지도 않다. (다음호에_)

김성규 동문의 아들과 며느리가 운영하는

명신부부한의원

부부한의사 박사 김동진, 박사 최은영

055-251-1075

창원시 소담동 120-6번지 2층



창원 **날개봉** - 비음산 (3)

장정치

숨을 몰아쉬며 재촉하는 발걸음 앞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괴테 할아버지가 일러 주신다. 어리석은 나는 좀 더 걸음을 빨리하여 숨을 더욱 헐떡거리려 본다. 하루아침에 참된 인간이 되어 보려고, 힘만 죽도록 빼고 등성이에(475m) 올라서니 큰 소나무 앞에 팻말이 요가나무라고 알려준다. 손을 들고 뒤로 다리를 들어 요가를 하고 있는 자태란다. 요리조리 뜯어봐도 이해가 부족하니 발길을 돌릴 수밖에. 평지를 지나면 자갈길이 이어졌고 양옆에는 싸리꽃들이 아양을 떨며 반겨준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짙은 진달래가 숲을 이루었다.


숲길을 벗어나 다시 등성이(515m)에 오르면 이제 정상이려니 했지만 길은 계속 이어져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하지만 열댓자국만에 다시 만나고 내리막으로 조금 이어지다 작은 등성의 바위(510m)에 올라서면 사과동, 성주동아파트 군락이 훤히 보이고 다시 철레철레 내리면 길 오른쪽에 재선충에 ko당한 덩치 큰 소나무가 사과란 천막을 둘러쓰고 절명한 자리를 기념하고 있다. 이쯤이면 나도 참된 인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묵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새 무슨 참된 인간이 되었으랴 싶어 다시 몇 걸음 내리고 올라서니 뜻밖에도 날개봉이 반긴다.

비음산날개봉(520m)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고 주변에는 숲으로 둘러싸여 전망이랄 것도 없어 물 한 모금으로 대신하고 날개봉과 하직을 한다. 진례산성남문 0.4km, 비음산정상 1.0km를 가리키는 팻말을 따라 내리면 로프가 걸려있고 바로 아랫길은 엄청 가파르니 오른쪽 길로 돌아내린다. 우리같이 다리에 힘이 빠진 노름들은 가급적 내리는 길이 충격을 덜 받아야 오래도록 산행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빙 돌아 나가면 왼쪽의 가파른 길과 만나고 몇 걸음 더 내리면 또 오른쪽(벤치가 있는)으로 돌아 한참을 내리면 왼편 길과 또 만나고 쉽게 산길을 내려서면 진례산성남문을 만난다. 능선으로 돌들이 깔려있는 이곳이 바로 진례산성터이다. 여기서 비음산 정상까지는 0.5km, 비음산으로 가기 전 왼쪽을 돌아보면 ‘벼락 맞은 느티나무’

7쪽에 이어짐 -

2012년 11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1일(수) 오후 6시30분 장소 : 맛있는생오리(223-5289) 산호동네거리 산호제일약국 옆 산호초등학교 쪽	 nov 21	부인회 일시 : 21일(수) 12시 30분 장소 : 하성이불(223-6160)
--	--	--

